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기념일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위대한 단결을 뚜렷이 과시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의 력사적의의는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이 없으며 조종친선의 년대기에 불멸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극히 곤란한 형편에서도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전선에 파견하는 전략적결단을 내리고 사심없는 혁명적지원을 주었으며 조종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단결된 력량으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종 두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피와

목숨으로 조종친선력사수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아로새겼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진호에서 지원군 장병들이 우리 혁명을 도와 흘린 피의 공적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조종친선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련사들의 고귀한 넋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진정과 경의를 담아 련사릉원에 화환을 보낸다고 하시었다.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정중히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보내는 화환들이 정중히 진정되었다.